

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아사왕

찬양해요

찬송가 563장

기도해요

가족 중 한 명이 대표기도해요

말씀을 읽어요

열왕기상 15:9-15

- 9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이십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
- 10 예루살렘에서 사십일 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
- 11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
- 12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
- 13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험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
- 14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
- 15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

말씀 이해하기

아사왕은 4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한 왕입니다. 남북 왕국의 분열 이후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, 330여 년 동안 남유다의 왕이 19번이나 바뀐 것을 생각하면 아사왕이 집권한 41년은 긴 통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긴 결과일 것입니다.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으며 신앙 중심으로 정의를 실천하며 나라를 다스렸습니다. 그의 말년에 행한 몇 가지 실수 외에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 다윗이 행했던 길을 따랐습니다.

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이 아사왕처럼 신앙 중심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무엇이 부족한지 생각해 보고 굳건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노력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.

좀 더
생각해
보기

1. 아사는 왕이 되어서 나라의 무엇부터 개혁했나요(12절)?
 - ▶ 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을 없애고
2. 아사는 당시 막강한 지위를 갖고 있었던 어머니를 왜 폐위시켰나요(13절)?
 - ▶ 또 그의 어머니 마야가가 혐오스러운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
3. 아사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(11, 14절)?
4.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실까요(15절)? 우리 각자의 생활에서 성별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.
5.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과 각 개인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 생각해 보세요. 그러한 것들이 곧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아사왕처럼 이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청산하는 것이 믿음이고, 믿음의 가정의 모습입니다.

기도해요

하나님, 우리 가정과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모두 청산하게 해주십시오. 그것이 우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해 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